

토틀넘 주장 손흥민, 시즌 마수걸이 골 넣을까



토틀넘 캡틴 손흥민.

유럽과 출격 ... 손, 본머스 원정

원형 김민재 무실점 수비 도전

PSG 이강인 부상으로 결장할 듯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이 2연승에 도전한다. 토틀넘은 26일 오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2023-2024시즌 EPL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퍼드와 2-2로 비긴 뒤 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둔 토틀넘은 올 시즌 첫 연승을 노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틀넘 감독의 높은 공격욕구를 기반으로 한 '공격 축구'는 시즌 초반 순항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다. 브렌트퍼드전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다. 슈팅 2개에 그쳤던 손흥민은 직전 맨유전에서는 최전방의 히사롤리송과 오른쪽의 데얀 콜루세브스키 등 동료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며 '도우미'를 자처해 현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직 공격포인트가 없는 손흥민은 본머스전에서 이번 시즌 마수걸이 득점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한 골을 더 추가하면 EPL 개인 통산 104호 골을 기록, 이 부문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103골)를 제치고 디에 드로그바(에보·104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

다. 같은 날 오후 11시 EPL 올버햄프턴의 황희찬은 에버턴을 상대로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지난 1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 2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0분 최전방에 투입된 황희찬은 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EPL에서 한국인 선수 중 가장 먼저 득점포를 가동한 황희찬이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발목 부상을 완전히 털어낸 황희찬이 에버턴전에서도 강점인 저돌적인 돌파를 내세워 공격포인트를 추가할지 주목된다.

같은 시간 황희찬의 소속팀 노팅엄은 맨유와 원정 경기를, 김지수의 소속팀 브렌트퍼드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 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27일 오전 4시 랑스를 상대로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다만 이강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PSG 구단은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 최소 A매치 휴식이 끝날 때까지는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막전에서 로리앙과 0-0으로 비긴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팀에 복귀한 2라운드 경기에서도 톨루즈와 1-1로 승부를 내지 못하며 '프랑스 최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개막 이후 치른 2경기에서 필드 골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2차전 음바페의 페널티킥이 전부다.

이강인이 빠진 PSG는 개막 후 3경기 만의 필드

골을 목표로 경기에 나선다.

'철기동'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28일 오전 0시 30분 아우크스부르크와 홈에서 만난다.

이번 시즌부터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으로 뛰는 김민재는 지난 19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23분 그라운드를 나올 때까지 무실점 수비를 펼쳤다.

손흥민을 떠나 김민재와 동료가 된 해리 케인은 개막전부터 1골 1도움을 올리며 우승컵을 향한 열망을 보였다.

조규성의 소속팀 미트윌란(덴마크)도 같은 날 오전 1시 노르셴란과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오른쪽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한 조규성은 당분간 결장한다.

조규성은 지난 21일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브린뷔와의 2023-2024시즌 덴마크 수페르리가 5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9분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벤치로 물러났고, 이후 구단은 조규성이 2주간 휴식을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정우영의 소속팀 슈투트가르트(독일)는 26일 오전 라이프치히로 원정을 떠나고, '한국인 삼총사'를 품은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은 같은 날 세인트 존스턴과 홈 경기를 치른다.

이재성의 소속팀 마인츠(독일)는 27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와 홈에서 격돌하고, 이적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황인범의 소속팀 올림피아코스(그리스)는 28일 오전 아트로미토스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연합뉴스

광주FC, 27일 안방서 수원삼성과 대결

수원전 3연승·8경기 연속 무패 노린다



광주FC가 안방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올 시즌 전승을 노린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8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수원전 3연승과 8경기 연속 무패를 노리는 경기다.

광주는 수원과의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지난 2월 25일 수원 안방에서 K리그1 복귀전이 자 시즌 개막전을 치른 광주는 아사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6월 7일 홈경기에서는 토마스 가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2-1로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겼다.

수원전 연승을 준비하는 광주의 분위기는 뜨겁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습상황에서 제르소에게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광주는 아사시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추격에 나선 뒤 후반 추가 시간 나온 이근희의 헤더를 앞세워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무승부로 무패행진인 이은 광주는 승리로 8경기 연속 무패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엄지성과 김한결이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에 파괴력을 더하고 있고, 베기와 허을 등 최전방 공격수도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앞선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아사시와 토마스도 기대감을 키운다.

수원은 올 시즌 5승 7무 15패(승점 22)에 그치면서 리그 11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수원은 이

기제, 고승범, 김보경, 김경중 등 베테랑 선수들과 불투이스, 아코스티, 카즈키 등 외국인 선수들이 포진한 '전통의 강호'다.

최근 흐름도 좋다. 26라운드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수원은 앞선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는 불투이스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5위 광주는 수원전에 이어 1위 울산, 4위 서울, 3위 전북 등 상위권 팀과 연달아 만나야 한다. 광주가 수원전 전승으로 상위권 팀과의 연전에 앞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FC안양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전남은 27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K리그1 28라운드 안양과의 경기를 갖는다.

앞선 27라운드에서 '1위' 김천삼무를 만난 전남은 하남의 멀티골로 안방에서 승리를 장식했다. 하남이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골을 장식했고, 후반 10분에는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남은 이날 승리로 11승 4무 10패(승점 37)가 되면서 7위로 올라섰고, 5위 안양(11승 6무 7패·승점 39)에 2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안양은 이번 여름 브루노, 라에르시오, 이동수, 공민혁 등을 영입하며 승격을 위해 화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발디비아, 하남, 플라나의 콕블레이가 살아나는 등 전남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다.

전남은 안양과의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최근 5경기 결과도 1승 1무 3패로 전남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 선두 김천삼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남이 기세를 이어 안양 열세를 만회하고, 순위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샌디에이고 김하성, 2년 연속 '2루타 20개' 달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부동의 1번 타자로 자리매김한 김하성(27)이 다시 한번 헬멧이 벗겨지도록 질주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쳐 시즌 타율 0.280(422타수 118안타)을 유지했다.

전날 구단이 '김하성 데이' 행사를 마련하고 헬멧을 벗기고 씌울 수 있는 '바블 헤드' (고개를 까딱거리는 모형)를 관중 4만 명에게 선물하자, 김

하성은 1회 첫 타석부터 또 헬멧이 날아가는 허슬 플레이로 화답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마이애미 에이스 샌디 알칸타라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2루타를 만든 것이다.

마이애미 외야진이 김하성의 장타력을 의식해 팬스 쪽으로 몰려나 수비한 사이, 김하성은 회전이 잔뜩 걸린 빗맞은 타구를 외야 빈 곳에 떨어뜨린 뒤 2루까지 질주했다.

시즌 20번째 2루타를 친 김하성은 지난 시즌(2루타 29개)에 이어 2년 연속 2루타 20개를 채웠다. /연합뉴스

하늘도 못막은 열정 ... 끝내 웃지 못한 황동하



황동하



간절하게 하늘을 울려뚫던 황동하가 또 다른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선발진의 승부·부진이 겹치면서 KIA 타이거즈에서는 '대체 선발'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 고졸 2년 차 황동하도 올 시즌 대체 선발로 우선 언급되는 이름이다. 앞서 8차례 1군 경기를 소화한 황동하는 지난 20일 삼성전에서 다시 선발로 나섰다.

황동하는 6월 23일 KT전에서 휴식을 위해 선발진에서 빠진 운영철을 대신해 선발 역할을 맡았다.

이날 황동하의 경기는 2이닝에서 끝났다. 1-2로 뒤진 3회, 선두타자 김민혁에게 2루타를 내주면서 황동하의 첫 선발 등판은 아쉬움으로 끝났다.

8월 20일 삼성전, 이번에는 양현종이 재정비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황동하가 가장 먼저 마운드에 섰다.

황동하는 1회 2사에서 구자욱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강민호를 3루 땅볼로 처리했다. 류지혁-피렐라-오재일을 상대한 2회는 11개의 공으로 삼자범퇴였다.

시작이 좋았지만 황동하는 다음 이닝을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3회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무려 88분간이나 중단된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 황동하는 3회 선두타자 이재현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 4회 1사에서 강민호의 타구가 폴 안으로 살짝 떨어지면 0-1. 황동하는

삼성전 선발...88분간 우천 중단

4.2이닝 3실점 KIA 4-6 패배

"대표선수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침착하게 류지혁과 피렐라를 땅볼로 처리하면서 4회를 마무리했다.

5회 시작과 함께 오재일에게 우월 솔로포를 내준 황동하는 1사에서 3루타를 허용했다. 소크라테스가 김지찬을 타구를 잡으려다가 뒤로 빠트리면서 기록된 3루타. 이어 김현준과의 승부에서는 1루수 포구 실책이 기록되면서 3번째 점수를 내줬다. 황동하는 김성윤까지 상대한 뒤 4.2이닝 3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우천 중단 악재에도 대체 선발로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지만, 활동하는 이날 경기가 4-6 패로 끝나면서 웃지 못했다. 그래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황동하는 다음 홈을 기다리고 있다.

황동하는 "너무 던지고 싶어서 핫팩하고 핫크림 바르고 계속 준비는 했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했는데 경기 취소 될 것 같다고 하니 마음이 가라앉았다"며 "코치님이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던지고 싶어서 어땠다"고 간절했던 등판을 이야기했다.

간절했지만 아쉬움이 더 많이 남은 등판이었다. 황동하는 "2-3이닝 정도 생각했는데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다. 그래도 아쉽다. 손승락 퓨처스 감독님이 살살 던지지 말고, 카운트 잡는 것 던지지

말라고 하셨다. 전력 아니면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몇 개 카운트 잡으려고 살살 던진 공에 홈런을 맞았다. 그게 많이 아쉽다"며 "실투 보이면 바로 넘어가고, 안타 맞고 그런 것을 배웠다. 감독님이 왜 전력으로 던지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전력으로 던지는 연습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을 쌓은 부분과 황동하의 스타일을 보여준 점은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황동하는 "첫 번째 선발 나가서 더 잘하러 다니니까 안 되는 게 많았다. 이번 등판처럼 하면 될 것 같다. 경험이 조금 더 쌓였다. 다음에 하면 여유가 더 생길 것 같다"며 "상대 생각하면서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타자 얼굴도 안 보기도 했다.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포수만 보고 던지기도 했다. 공격적으로 하는 게 원래 내 스타일이다. 그게 어느 정도 통했다. 변화구랑 섞어가면서 하는 게 내 스타일인데 그나마 그 부분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동하는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황동하는 "9월에 엔트리 들어가려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다. 9월 엔트리 확정 노리면서 그것 하나 보고 열심히 하는 퓨처스 선수들이 있다. 1군 콜업되면 형들도 '퓨처스 대표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면서 한마음 한 뜻이다"며 "내가 스스로 위축되면 상대가 알고 치는 것 같다. 자신감 있으면 통하는 것 같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감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